

平民政 부총재 朴英淑씨

여성운동 32년만에 「變身」 “政治一線서 돌파구 찾겠다”



朴順天이후 첫 야당 핵심당직

여성단체연합회(女聯) 수석부회장이며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장이던 朴英淑씨(55)가 11월23일 平和民主黨의 부총재겸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으로 입당했다.

이날 오전, 동교동 자택에서 『우리 당에 기쁘고 중요한 일을 한 가지 공표하겠다』며 기자들에게 朴부총재의 영입을 발표한 金大中총재는 『朴여사는 李兌榮·李愚貞여사와 함께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여성계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전제, 『朴부총재의 입당을 계기로 平民政의 여성정책이 획기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며, 여성 유권자들의 지원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필승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뻐했다.

朴부총재도 『당초부터 平民政의 정강정책을 지지했고, 金大中후보를 신뢰하여 그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정치에는 뜻이 없었다. 平民政측서 여성부총재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여성지도자들이 협의, 나를 추천함으로써 중책을 맡게 되었다』고 입당경위를 설명했다.

—여성이 군소정당 아닌 전통보수 야당의 핵심당직을 맡은 것이 朴順天여사 이후 처음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떤 정강정책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물도 인물이지만
사회 소요 원인 제거·光州사태 해결
소득분배를 통한 안정사회구현 등
여러 정강정책 중 특히 人權 신장과
女性문제해결 등
政策路線에 따라 平民黨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회소요요인 제거·광주사태 해결·소득분배를 통한 안정사회구현, 한반도 평화정착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인권신장과 여성문제 해결에 金大中후보가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많습니 다. 중요한 것은 인물도 인물이지만, 정책노선에 따라 우리가 平民黨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비슷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생존권 그 자체가 이번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한국의 여성운동은 두 갈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산층 이상의 여성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성차별 극복을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달성하려는 운동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각 계층의 여성지도자들이 이끄는, 인간해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해방을 구현하려는 운동방향이 그것입니다. 후자에 속하는 그룹이 女聯입니다. 회원 각자의 생각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女聯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치에 뜻이 없었는데도 입당하게 된 데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을 법한데요.

『정치권 밖에서 아무리 외쳐 봐야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기 일쑤다.

우리 스스로 정치일선에 나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연초부터 女聯쪽에 대두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이 정계 일선에 발탁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 같이 비판적이었다. 여성이 때로 행정부나 국회에 진출한 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개인적 발탁일 뿐이어서, 그들이 여성의 창구나 대변자 노릇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女聯측은 대표성을 부여하여 파견하는 형식으로 정계에 진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막상 平民黨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고 보니, 지금이 적절한 시기냐가 문제가 되었다. 여성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1주일 정도 심사숙고한 끝에 제1부회장인 朴英淑씨를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가 처해 있는 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극구 사양했지만, 대세를 거역할 순 없었어요. 주위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자문도 했고, 남편(安炳茂·韓神大 명예교수)의 의중을 떠 보기도 했어요. 그분은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하더니, 「그렇다」는 답이 나오거든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이었어요. 남편과 아들, 부자간에 「도리없으니 우리가 참고 밀어주자」고 합의했답니다.』

남편 安박사가 제시한 명제란, 「여성운동에 앞장서 온 30년을 미련없이

결산할 수 있겠느냐. 정치는 경쟁사회다, 극복이 가능하겠느냐. 정당이란 개인의사보다는 단체의견이 절대적으로 앞서는 사회다, 따를 수 있겠느냐」는 세 가지 질문이었다.朴씨는 女聯 부회장·아시아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국민운동서울본부 상임대표·KBS시청료거부 범시민운동 여성연합 회장 등 자신이 맡고 있는 단체의 임원직 사퇴서를 우송하는 것으로 인권·여성 운동의 결산을, 정치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시작했다. 이는 그녀의 한 평생에 일대 전환점, 에폭으로 기록될 것이다.

YWCA서 여성운동 첫걸음

朴씨가 여성운동 일변도의 외길 인생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1955년 이하 여대 문모과를 졸업하자마자 YWCA에 몸을 담으면서였다. 졸업을 앞두고 은사가 부르더니 『학교에 남으라』고 권유했다. 이에 그녀가 『YWCA 朴에스더선생님께 졸업하면 Y에서 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외국여행 중이신데 돌아오시면 상의해서 결정하겠어요』라고 대답하니, 은사가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테니, 가능하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쪽으로 결정하라』고 권유, 그녀는 朴에스더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며칠 후 여의도 비행장. 막 트랩에서 내리는 朴에스더씨에게 달려가 대뜸 『나, Y에 가야 돼요, 학교에 남아야 돼요』하고 물었다. 『당연히 Y에 와야지.』 그 한 마디는 곧 그녀의 진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었다. 그녀는 대학생할 내내 교내외의 Y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에 관한 한 「항소」라는 별명을 얻어 놓고 있었다. 해서, Y에서는 그녀를 「일꾼」으로 일찌감치 점을 찍어 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단계에선 심사숙고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무서운 추진력을 발휘하는 「여성답지 않은 여성」으로 주위에 정평이 나 있다. 그것은 어쩌면 母傳女傳, 일찌기 제과공장 등을 경영하며 가게를 떠맡아 주위에 「여장부」로 널리 알려졌던 어머니(尹竊順·84년 작고)의 억척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머니 尹씨의 사업수완은 시아버지로부터 영향받은 바 크다. 평양시 壽洞에서 3남3녀 가운데 둘째로 태어난 그녀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엔지니어였던 그녀의 아버지(朴基南)가 요절하자, 3년 뒤 尹씨는 가족을 이끌고 만주 길림으로 이주, 시아버지의 양조장 사업을 돕게 되었다.

그녀의 祖父는 그 곳 한인사회의 유지. 그녀는 조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인학교인 同榮학교 5학년으로 전학했고, 여학교에 입학한 직후에 8·15해방을 맞자, 그해 가을 그녀의 집안 모두가 귀향길에 올랐다. 귀국하여 평양에 다시 터를 잡으면서 집까지 마련했던 어머니 尹씨는 시국이 자꾸 수습해 가자 억척정신이 다시 발동, 47년 세 차례로 나누어 6남매에게 모두 38선을 넘게 하고, 자신도 두어 달 뒤인 9월쯤 월남하여 가족과 합류했다.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숙부(소장예편)가 당시 光州에 주둔한 부대의 지역사령관이어서 그녀의 가족도 光州에 자리를 잡았다. 평양에서 정의고녀를 다니다가 월남한 그녀는 이듬해 전남여고 5학년에 편입했다. 麗·順반란사건을 진압하느라 곤욕을 치르는 숙부 곁에서 전남여고를 졸업한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이화여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이무렵 그녀의 어머니도 생활근거를 다시 서울로 옮겨 장충동에 터를 잡았다.

『입학 직후 6·25가 터졌어요. 이듬해 가을, 전시대학이 부산에서 재교할 때 등록하려고 했더니, 분명히 서울에서 6·25 발발 전에 입학을 했었는

**여성운동,
아니 그보다도 먼저 민주쟁취를 위해
가두투쟁의 최선봉에 서야 했던
재야여성지도자 朴英淑씨는
이제 여성운동의 짐을 한 몸에 지고
정치인으로 변신,
대통령선거란 벼랑 시험대 앞에 섰다.**

데도, 학적이 증발돼 버렸어요. 할 수 없이 다시 시험을 치르고 재입학했지요. 당초 제가 의예과를 지망했었거든요. 의사라도 돼야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랬는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의학공부를 하자면 고생이 막심할 것」이라며 아버지나 다른 어른들 숙부께서 막무가내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학문을 하려면 도구과목인 영어부터 해결해야겠다 싶어 영문과로 돌렸는데, 어물어물하는 사이 학적에서 누락됐던 모양입니다.』

일 밖에 모르던 「Y」 시절

피난길에 오르지 못한 그녀는 적지하에서 고생캐나 했다. 동생들, 그리고 전남여고 동기동창생으로 이화여대에 진학했던 친구 몇이서 다락에 숨어지내기도 했고, 호구를 위해 머리를 틀어올리고 중앙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기도 했다. 부산에선 경기고교에 재학하고 있던 바로 아래 남동생과 판자집에서 자취를 했고, 3학년때 학교가 귀경하면서는 기숙사생활을 했다. 『입학 당시엔 전시라서 서클활동이라야 학생회와 그 산하의 YWCA부가 고작이었어요. 집안의 기독교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Y활동에 참여하게 됐지요. 對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피난민 구호활동·고아원 봉사활동에, 방학때는 농촌계몽활동까지. 성서연구활동도 아주 활

발했구요.』

당시 인기가 있던 성서연구그룹의 지도자가 황성수·강원룡 목사와 안병무씨(그중 한 사람은 뒷날 그녀의 남편이 된다), 인기강사는 함석헌옹이었다. 당시 이대에선 Y임원들이 대개 학생회 간부를 겸하고 있어 그녀는 성서연구그룹에서 믿음을 知的으로 다지는 한편, 채플을 준비하고 사회를 맡는 등 종합무진으로 활약, Y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평양시절, 선교리에서 살며 대동강 다리 건너 성남소학교를 다니던 때, 언젠가 강독에 앉아 『나는 이답에 커서 엄마가 없는 아이들의 엄마가 될테야』라고 친구에게 말했던 포부가 현실로 구체화되지는 못한 채로 아직 가슴 한 편에 간직되어 있긴 했지만, 그녀가 Y활동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딘 것은 「성차별」이니 「남녀불평등」이니 하는 여성운동의 과제를 절실하게 체감한 때문은 아니었다. 관념적으로만 「그런가 보다」 여겼을 뿐. 그러기에 Y에의 첫 걸음은 그녀를 평생 여성운동인으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수습하는 자리나 다른 없는 훈련간사를 맡아 직업인으로 여성운동의 실무활동을 시작한 朴씨는 중고등부·청년부·대학생부 등 각 부의 간사를 역임한 뒤, 총무와 실행위원으로 활약, 중요한 실무자리를 모두 거친 명실상부한 「Y맨」이 되었다. 『정말 일밖에

KBS-TV시청료거부는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운동



◇KBS TV시청료거부운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온 박씨는 이것이야말로 주부들이 전개할 수 있는 「시민저항운동」이라고 강조한다. 어느날의 임원회의 장면이다.

『安선생님의 결혼관에 문제가 많네요.』

그녀는, 2년전 서독 하이델베르크대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野聲」誌를 펴내던 安교수의 「생각」에 대해 그의 글과 성서연구그룹을 통해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다.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결혼은 이기주의의 기본이라며 기피해 오는 사실까지도. 바로 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인연의 끈이었던가. 두 사람은 그해(67년)를 넘기지 않고 연말에, 『괴팍한 사람들 혼례라 낯설도 고약하다』는 하객들의 핀잔을 들으며, 金在俊목사의 주례로 YWCA에서 식을 올렸다.

결혼은 그녀의 「業」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첫돌이 가까와 올 무렵, 엄마를 놓지 않으려는 외아들(載權·서울대 수학과 1년)의 손을 뿌리칠 수 없어 그녀는 사표를 냈다. 「남편하고는 타협이 가능하나, 자식하고는 타협할 수 없는 현실」에 백기를 든 셈이었다. 사실 신희초기엔 남편하고의 타협도 쉬운 게 아니었다. 가치관의 충돌이 그렇게 무섭다는 사실을 그녀는 신희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했다.

겨우살이를 위해 연탄을 한꺼번에 들여놔도, 쌀을 좀 넉넉히 팔아놔도, 심지어는 것갈을 담그는 것까지도 남편은 시비(?)를 걸었다. 「예비」는 주부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남편은 그것을 「가진 자의 저급한 의식」으로 몰아붙이곤 했다. 그녀의 집 안엔 짝이 맞지 않는 가구가 여럿 있다. 「버리기 아까와」 이웃에서 거저 준 것들이다. 그것들을 들여놓는 데도 그녀는 남편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모던 시절이었어요. 당시는 戰後여서 Y의 조직강화가 당면과제였지요. 특히, Y틴 간사시절에는 전국을 누비다시피 지방출장에 나서야 했어요. 몇 년만에 웬만한 여학교라면 Y틴이 구성되어 그 성과가 대단했지요. 하기와 동기에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선교에도 심혈을 기울였구요. 구호물자를 보내준 나라에는 학생들이 모은 우표를 보내 보은의 정을 표시했고, 농촌에 송아지 보내기 운동도 전개했답니다.』

청년부 간사시절에는 「남녀의 만남」을 위한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고, 대학Y를 통해서 성서연구의 붐을 조성했던 박씨는 63년 과격적인 어린나이에 집행부 총책인 총무에 임명됐다. 협동총무제도가 상근총무제도로 바뀌면서 그 제1호로 근무했던 李姬鎬씨의 후임이었다. 너무 곤혹스러워 못 하겠다고 발을 뺐었다가 회장단에서 「그럼 누구를 시키면 좋을지 이름을 대라」고 다그치는 바람에 엉겁결에 떠맡은 자리였다.

자신이 총무로 재직할 6년 동안 크고 작은, 보람 있는 일이 많았지만, 특히 그녀가 잊지 못하는 것으로 두 가지 사업이 있다. 한국YWCA 창립

50주년 행사와 반백년史 편찬·간행사업, 그리고 외원에 의존하던 한국YWCA가 자립의 기틀을 마련한 회관 신축사업이 그것이었다. 『그처럼 일에만 빠져 있다 보니, 결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생각조차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를 유난히 귀여워해 주신 할머니의 성화에 선을 몇 번 보긴 했지만요.』 할머니는 그녀의 출근길에 따라나서 차에스더고문에게 『에스더야, 영숙이에게 다른 건 다 가르쳐도 네가 혼인 안 한 건 가르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할 정도로 성화가 대단했다.

67년 安炳茂씨와 결혼

결혼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해지는 건 아닌 성싶었다. 총무인 박씨가 Y전국대회에 安炳茂교수(당시 중앙신학교 학장)를 강사로 초빙한 것을 인연으로 둘은 몇 번 만났는데, 어느날 安교수가 불쑥 이렇게 제의했다. 『어머니께서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마취에서 깨어나시며 「너, 장가가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얼떨결에 「그러지요」 하고 대답하고 보니, 이젠 결혼 안 할 수가 없게 됐구만요. 우리 결혼합시다.』 그녀는 깔깔 소리내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고는 그냥 헤어졌다.

그러나, 언제부터였는가. 『소유를 부끄러워해라. 이기적인 의미의 남녀 동등 주장이 여성운동이나』는 남편의 횡난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진 것을 언제든 다 내놓고 빈 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남편의 주장도 어느 틈에 자신의 것인 양 그녀의 의식 속에 들어앉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남편의 의식화작업이 성공했다는 증거였다. 이 「성공」은 76년, 「일대전환」으로 그녀의 삶에서 결실을 거둔다.

76년 明洞사건 때 남편 拘束

1년쯤 쉬고 다시 女協(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4년쯤 일했을 무렵이었다. 하루는 남편이 정색하고는 『얘기 좀 하자』고 했다. 『우리 애겐 아이가 있다. 하나뿐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저야 할 게 아닌가. 당신의 세계와 내 세계 중 어느 쪽 하나를 후퇴시키자. 당신이 선택하라.』 그녀는 당장 사표를 내고 들어앉았다. 이로써 그녀가 월급받으며 전개해 온 여성운동은 중지부를 찍었다. 女協을 그만두고도, 프리랜서格으로 여성운동은 계속되었다. 크리스천아카데미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이끌며 여성운동의 이념을 향해 여성들을 결집하는 작업을 전개했고, 가족계획협회·각 학교의 자모회를 통해서는 여성들에게 생태계 파괴·인구폭동·자원 고갈·환경오염 등을 주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결정적인 사건과 조우한다. 76년, 「3·1국선언사건」, 세칭 명동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이 20명 속에 끼여 붙잡혀가자,朴씨는 스스로 「삼일가족」이라 일컬었던, 구속자부인들이 중심이 된 구속자가족들과 함께 구명운동에 나섰다. 「목요기도회」에 참석하고, 재판날이면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주위에서 답지하는 성금은

최소한의 생계비 말고는 모두 구속자들의 영치금이나 「운동차원」의 경비에 충당했다. 구속자부인들은 의식 있는 여성들의 지원을 받아 차수저·목걸이 등을 만들어 성금을 보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회복」이란 글귀가 새겨진 수천 장의 목도리는 해외의 성원자들에게 보답의 징표로 보내지기도 했다. 이는 면회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활용하여 한



◇「6·10대회」 때 女聯의 회원들과 함께 가두투쟁에 나섰다. 전투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연좌농성하고 있는 朴女聯부회장(가운데).

땀 한 땀 민주회복을 외면서 뜨개질한 기원과恨의 교직물이었다. 해직과 복직을 네 차례나 반복한 남편의 또 하나의 「고행」. 그해 연말, 그날은 12월29일, 결혼기념일에 남편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남편이 苦行하고 있는 동안朴씨는 자신의 여성운동방향에 전면 수정작업을 가했다. 그동안 추구해 온 「성차별의 극복과 남녀평등 구현」이, 어

찌 잘못 된 사회구조의 개혁 없이 가할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나라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나서지 않고서 어떻게 남자와 동등하게 대접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성이 그녀의 뒤늦은 깨우침이었다. 인권 사각지대에서의 女權신장운동은 허상에 불과한 것. 따라서, 현실정치와 여성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물론, 예를 들어 남녀가 힘을 합쳐 노동운동을 전개한 끝에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성취하고 보니, 이번에는 남성들은 의식하지도 못하는 여성문제가 남더라는 얘기처럼, 이 사회의 여성운동이 멀고도 험난한 길임도 차츰 실감하게 되었다.

70년대 후반,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부회장과 YWCA 실행위원으로 인권운동대열에 섰던朴씨는 80년대에 들어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년여 교회 여성운동을 조직화하는 데 정열을 바쳤고,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제8차 서울 총회에선 아시아여성대회를 주관, 이 대회에서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84년은 이른바 재야여성단체들의 활약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된 해다. 시위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여학생들의 「성추행 폭로」가 잇따르자, 17개 여성단체가 모여 공동위원회를 결성, 관련 경찰관들을 고발하는 등 인권투쟁 전면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공동위원회는 가족법제정 촉진을 위해 전국여성유권자 촉진대회를 열어 국회에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성도어패럴 해고노동자 구명운동과 여공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톰보이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연합사업을 펼쳤다. 공동투쟁을 전개할 때마다朴씨는 으레 소집책의 중임을 감당해야 했다. 「이슈가 있을 때만 소집하니, 투쟁의 능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했어요. 자연스럽게



◇모처럼 친정의 조카손녀들이 찾아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왼쪽부터 외아들 載權君과 차씨, 오른쪽이 安炳茂교수). 핏줄의 보호본능만으로 그칠 때, 그 母性은 위대할 수가 없다고 그녀는 말한다.

조식화의 필요성이 대두됐지요.]

性고문 규탄대회 앞장

그리하여, 투쟁노선이 같은, 중산층·노동·종교관계 단체 등 22개 재야여성단체가 모여 85년 3월에 三民(民族·民主·民衆)을 내걸고 결성된 것이 女聯이다. 女聯에 첫번째로 도전해 온 대형사건이 「부천시 성고문사건」, 「성고문대책여성연합」을 결성, 회장이 된 그녀는 성고문 규탄의 목소리를 전국 민들로부터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성고문사건은 중산층의 의식을 깨웠는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내는 시민항쟁의 불씨를 제공하게 되었으니까요. 女聯이 처음으로 들고나온 이 사건은 변호인이 고발인이 된 우리 사법사상 최초의 사건이기도 했구요.』

개인적으로는, 그녀에게 「대학생들이 왜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를 버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 기성세대로서의 뼈아픈 반성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권인숙양이 당당한 모습으로 구호를 외치며 법정에 들어서다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것처럼 당당하던 모습이 순식간에 무너지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식을 하고 나와 파리한 얼굴로 의연하게 법정싸움을 벌이는 인숙양을 보면 저절로 구호가 나오더군요.』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쑥스러워 구호도 외치지 못했던 그녀였지만, 성고문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녀는 시위대의 앞장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목청을 높이게 되었다. 朴鍾哲고문치사사건 때는 상복에 배수건을 쓰고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시위를 주도했고, 李韓烈군사건을 전후해서는 최루탄추방운동을 전개하며 당국과 첨예하게 맞서기도 했다. KBS시청로 거부운동도 그녀가 오랫동안 주도해 왔던 비폭력 저항운동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여성운동, 아니 그보다 먼저 민주쟁취를 위해 가두투쟁의 최선봉에 서야 했던 재야여성지도자 朴英淑씨는 이제 여성운동의 짐을 한 몸에 지고 정치인으로 변신, 대통령선거란 벽찬 시험대 앞에 섰다.

『당에 몸담은 사람은 저 하나지만, 대리성·상징성을 띤 그 「하나」에는 뜻을 함께 하는 수많은 「우리」의 마음이 결집돼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선거지만, 우리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성유권자층을 취약계층으로 꼽고 있는 平民黨의 취약점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朴英淑부총재는 힘주어 그렇게 대답했다. *

週刊朝鮮 애독자 謝恩퀴즈

국내유일의 시사주간지 「週刊朝鮮」이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사은의 광장」을 마련했습니다.

지성인의 애호를 받으며 고급스런 시사·교양·정보 기사로 정상의 고유영역을 확보해 온 「週刊朝鮮」은 마침내 10만부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週刊朝鮮」은 애독자와 더불어 생각하는 「현대사퀴즈」를 4회(4週) 단위로 묶어 사은퀴즈 대행진을 시리즈로 보내드립니다. 푸짐한 상품도 마련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요령 : 週刊朝鮮 974호
105페이지 참조

제 5 차 4 회 문제

16년 만에 맞는 대통령직선. 그러나 각종 흑색선전과 지역감정으로 인한 폭력이 난무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정·타락선거로 점철되어 온 39년 헌정사에 또 한번 더 汚點이 찍혀질 것인가.

1960년 3월15일의 대통령선거가 부정의 극에 달했고, 그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당시 정권의 말로가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든가는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생생히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40% 사전투표, 3인조·9인조 공개투표, 오페라투표... 온갖 악랄한 수법을 다 동원, 국민의 주권을 우롱했고, 결국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던 당시 내무부장관은?

- ①金亨根
- ②崔仁圭
- ③金泰善

이제는 선
週刊朝鮮 애독자 謝恩퀴즈
제 5 차 4 회 정답 번호